논어 19편 자장 17장 · 쓰기 연습

曾子曰：「吾聞諸夫子：『人未有自致者也，必也親喪乎！』」

이 장의 글자를 문장 순서대로 따라 쓴 뒤, 바로 아래 빈칸에 써 보세요.

曾 子 曰 吾 聞 諸 夫 子 人 未 有 自

致 者 也 必 也 親 喪 乎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